

**전일동향**

전일대비 1.0원 하락한 1,380.20원에 마감

15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1.0원 하락한 1,380.2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30원 상승한 1,382.5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고점에서 나온 수출업체 네고 물량과 외국인들의 나홀찌 이어진 국내 주식 매수세에 하락을 이어갔고, 미국의 잇단 관세 공세에 따른 경계감은 하단을 지지하며 1,380.20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 장중 변동 폭은 6.10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26.70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증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82.50	1388.20	1376.80	1380.20	1382.70
엔화	934.86	938.04	926.29	926.70	-	
유로화	1610.73	1617.06	1599.93	1600.98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23	-6.63	-14.72
결제환율(수입)	-0.9	-5.67	-12.79	-25.46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美 관세 인플레이션 징후에...1,380원대 후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5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80.20) 대비 6.75원 상승한 1,384.4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관세 영향이 확인되어 강달러 분위기에 환율 상승이 예상된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6월 CPI는 전년동월대비 2.7% 올라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근원물가는 2.9% 올라 예상치에 부합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관세에 민감한 생활필수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관세 정책이 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징후가 확인되었다. 이에 연준이 금리를 9월 까지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 강세 압력을 심화시킬 전망이다. 또한, 수급 환경도 환율 상승에 우호적이며 수입업체 결제 수요와 해외주식 투자 등을 위한 환전 수요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달러 강세에 이어지는 역외 롱플레이도 유입되며 환율 상승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출업체의 고점 매도와 국내 주식의 랠리는 환율 상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82.00 ~ 1391.00 원
---------------	---------------------

<b>체크포인트</b>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123.34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6.75원 ↑
	■ 美 다우지수 : 44023.29, -436.36p(-0.98%)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10.54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3795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